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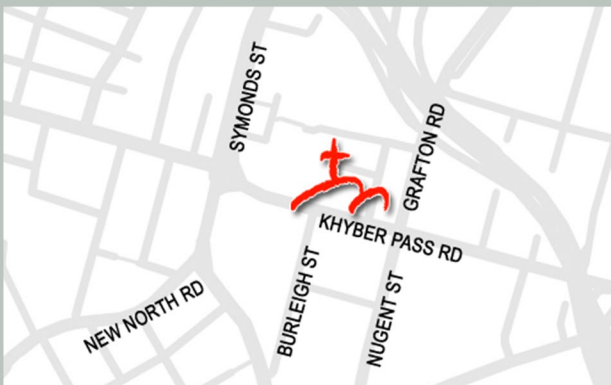
-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하반기 성경공부 주일 반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평일 낮반은 화, 목 중 선택)  
과목: 신앙의 토대 기간: 10 주 교재비: \$25
-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터키 공동체 주관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 바누아투 삼마 교회 헌당식에 참여할 성도는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헌당예배: 2019년 10월 30일 (수)
- 써머타임이 시작됩니다. 28일 (토) 저녁 시계를 한 시간 조정해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9시→10시).
- 이태한 목사는 일본에서 열리는 총회 임원 회의 차 일본에 체류 중입니다. (24일 귀국).
- 제30회 뉴질랜드 정기 노회가 목(26일) 오전 10시 30분 섬김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 등록한 성도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경희 집사 (박혜정 집사 夫) 312/26 Morningside Dr 027-233-0110 2 남선교회

[9월 교회 사역 일정]

25일 (수): 터키 공동체 주관 예배

29일 (주일): 성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9/22  
21권 38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b>주일에배</b>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성훈 목사
찬양	-----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역대상 16:8-10	인도자
■ 찬송	-----	213장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	342장	다같이
대표기도	-----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사도행전 6:10-11	인도자
찬양대찬양	-----	만세반석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	복음의위력	이성훈 목사
찬송	-----	352장	다같이
헌금기도	-----	-----	인도자
교회소식	-----	-----	인도자
■ 응답송	-----	445장	다같이
■ 축도	-----	-----	이성훈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요일예배</b>	터키 공동체 헌신예배	오후 7시30분	<b>청년예배</b>	오후 3시 15분
기도	-----	이혜경 집사	금주기도	오혜윤 자매
성경봉독	-----	마가복음 9:45-50	다음주일	박민해 자매
특송	-----	터키 공동체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	-----	[소금의우정으로 화목하라]		
찬송	-----	이태한 목사		
주기도	-----	488장		
	-----	다같이		

[9/10월 기도 순서]  
9월 29일 (주일) / 정덕수 장로  
10월 2일 (수) / 정진택 집사  
10월 9일 (수) / 정혜숙 권사

[9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박병민, 김자경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찾을 겨를도 없이 짐 정리하고 옮기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번 달은 예상보다 훨씬 더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니까?

### 학원

학원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먼지에 공사하는 소리에 정신이 없지만 새로 모양을 갖춰가는 교실을 보면서 뿌듯해집니다. 학원 학생의 어머니 한 분께서는 제가 당분간 이곳을 떠난다는 소식에 만떡 (만두 비슷)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만떡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학생 어머니는 내년에 꼭 와서 가르쳐 달라며 감사 인사와 초콜릿을 주셨습니다.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과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새로운 가족 AL 도시에서 언어 공부를 마치고 이곳으로 한 가정이 왔습니다. 어린 두 딸과 엄마가 먼저 오고, 비자 준비 때문에 형제는 잠시 이곳에 왔다가 곧 캐나다에 가서 서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컨퍼런스를 가야 다른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 도시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집 주인이 믿는 사람들이고 좋은 분들이라 집 구하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모임

교회, 주중 여성 기도모임, 학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서 점점 더 바쁜 와중에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제 용감한 시도로 잠시 정신이 달아났지만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쁩니다.

### 집 보관

그동안 집을 보관할 장소를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점점 초조해지던 중 N목사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오늘 집을 옮겼습니다. 창고가 아닌 빈 사무실인데 비나 쥐, 습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렌트를 위한 곳인데 소유주가 믿는 분이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월세 없이 집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43:19). 안식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 계획들과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었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계속 기도하지만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 강 나하르 선교사

#### 기도 제목

1. 이번에 온 가정이 잘 정착하고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2. 한국에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 동경에서 드립니다

한국인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인천을 경유하여 지난 화요일(17일) 오후 평생 처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마중 나온 일본 노회 목사님의 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지나 도착한 동경 시내에 대한 첫인상은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다수가 살아가는 지혜를 유감없이 표출한 축소지방주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애증의 나라 수도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에는 7천8백여 개의 교회들이 있으며 기독교인 수는 1억 3천만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 선교가 필요하고 언젠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해 달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는 일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이 묻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임원 회의를 하면서 한인 목사님들을 통해 알게 된 일본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칸센' 열차가 정착하는 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칸센이 정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구가 그곳에 모여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립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목사님들 대부분이 젊었고 이들 역시 일본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기에 대학가를 찾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회 목사님들 부인인 사모님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남편과 함께 복음의 불모지에서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 만개의 잡신이 있는 나라, 그 잡신에 묶여 살아가는 나라, 전도가 되지 않는 나라, 한국보다 일찍 기독교가 전해졌고 선교사가 있기는 해도 기독교는 그저 명목상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일본, 그러나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짓밟고 우리네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라는 선입견이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20일) 모든 총회 임원들이 흩어져 각각 정해진 일본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저는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사이타마 현에 있는 요한 사이타마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라 언어의 장벽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위해 또한 사이타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귀한 헌신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오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이태한 목사

1. 성령님의 역사로 어둠의 권세와 사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2. 교회학교가 영육으로 강건하게 성장하여 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3.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안전과 강건함이 있도록.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